

지금 이시각

비영리 월간아카이브
발행 _ pigheadlab

TIME NOW

2023. 10
열여섯번째



오종원

공간의 3주년을 맞이하며

이안

내 친구 숙이가 아이를 가질
차례입니다.

제이드

생존일기

줄리

압입니다

김희진

알지 못하는 것에 가정
을 덧대어 추리하기

이채연

내 그림의 집

Pighead Lab



표지이미지 :

고등어 회. 생선회 자체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고등어회는 취향만 맞는다면 어느 회 부럽지 않은 훌륭한 맛이라는 것이다. 대방어같이 확 느끼한 것도 아니면서 적당한 기름기에 미원을 뿌린 것 같은 감칠맛, 여기에 특유의 향까지. 더욱이 희귀성도 있어서, 바로 잡은 것이 아니면 금방 물러지고 맛이 변한다. 참고로 남쪽 수산시장에서는 의외로 저렴한 가격에 활고등어를 먹을 수 있는데, 제주만 하여도 갈치회와 고등어회를 묶어 저렴하게 파는 편이다.



오 종 원

문화예술인력 /
피그헤드랩 운영

공간의 3주년을 맞이하며

1. 내가 왜 피그헤드랩을 만들려고 하였을까?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사람들이랑 같이 술 마시려고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기는 한다. 꼭 틀린 말은 아닌 게, 내가 한참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커뮤니티’를 중점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술자리가 참 많았다. 나는 그것을 일종의 수혜였다 생각한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능력이 된다면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배우고 경험하는 그런 기회.

2018년 당시 가까이 지내던 두 작가, 손승범 오영은과 함께 술 한잔 하며 꾸념을 하던 중, 갑자기 오기가 생겨 무엇인가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외부 공모를 통해 게스트를 섭외하고 주기적인 워크숍을 가졌으며 나름 자료 집도 만들어내는 등 야심 차게 ‘이야기 수집하기’를 진행하였다. 이것을 일종의 팀 프로젝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럿이 모여 주제를 정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이 큰 그림이라면 그림이다. 이에 대한 수요도 있는 편이라 나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3년정도 팀프로젝트를 운영해봤는데 어떤 한계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만들어진 이 팀과 분위기, 성과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을 유지하는 것도 일이었고 새로운 팀원을 뽑으면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것에 어려움도 발생한다. 함께 열심히 추진한 무엇인가도 해가 지나고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면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뭔가 방법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공간’이 있으면 달라지지 않을까 였다. 아무리 사람을 모아도, 이야기를 모아도 그곳이 정착할 수 있는 공간 필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그게 내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2. 계약일 기준으로는 지난 8월, 그리고 공식적인 콘텐츠는 이번 달 즈음으로 해서 피그헤드랩이 3주년을 맞았다. 현재 돌아오는 12월 2일, 3주년 기념전이라 쓰고 주변인들 얼굴이나 보고자 하는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 혹시나 이 글을 보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아무튼 이러다 보니 본래 초기 목표는 달성한 기분이 든다. 딱 3년만 해보자 이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먼저 3주년을 생각하면 그동안 공간에 얼마를 썼더라 어림 계산을 해보게 된다. 명확히 딱 떨어지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얼핏 차 한 대

값이 나왔다. 물론 이 금액은 어느정도 예상했던 금액이긴 하다.

예전 모 공간 대표가 어떤 자리에서 한 얘기가 생각난다. “공간을 할 거면 한 3년 정도는, 수익이 없어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하라고.” 사실 깊게 생각할 것도 아닌 게 정말 맞는 이야기이다. 애초에 공간, 문화사업을 지향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딱 떨어지는 수익구조 모델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장료를 받는가? 아니다. 굿즈 같은 것이 잘 판매되는가? 하기 나름이지만 대체로 아니다.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는가? 아니다.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원하는가? 아니다. 지자체나 정부에게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알아봐야 하겠지만 큰 수익구조는 아니다.

물론 하기에 따라서 자영업 뒤통, 문화라는 단어만 잠시 비켜 놓으면 못할 것은 없을 것이다. 일단 당장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게 대관전을 운영하고 대관료를 받거나, 차나 주류를 파는 카페의 형식을 띌 수도 있을 것이다. 미대 다닐 적 기술을 살려 교습소를 운영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전시 설치를 가장한 인테리어 영업을 댈 수도 있겠다. 일정 경력을 살려 문화 공간 운영 지원금이나 전시 기획공모를 통한 기금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수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는 피그헤드랩으로 영리적인 구조를 갖는 것은 포기하고 시작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그헤드랩을 활용해 유지비를 벌고, 또 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조급하고 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먼저 내가 기획자로서 그 정도의 역량과 성과를 갖고 있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의외로 많은 공간들이 상기한 시도들을 하면서도 겨우 연명하거나 짧게 치고 사라지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언급해왔지만, 나는 피그헤드랩을 대단하고 화려하게 운영하기 보다, 최대한 내가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늘고 길게 가고자 하였다. 그게 피그헤드랩과 인연을 맺는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내 나름의 성의라고 생각한다.

현재 나는 별도의 회사를 다니며 피그헤드랩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이라 해야 할지 어떻게 유지하는 한다고 해야 할지, 확실히 동시에 두가지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 현재 피그헤드랩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시가 진행된다면 퇴근 후나 주말에 나와 관리를 하는 정도. 분명 취약한 지점도 있고 민감한 분과는 불편할 일이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 또한 공간 자체도 환경적 요인 때문에 온전히 깔끔한 편은 아니다. 그러다 보면 여전히 돈이 문제인 것이다. 꼭 내 생계가 해결될 만큼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한 명 쓸 만큼,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보일 만큼, 예술가들에게 조금이라도 아티스트피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매년 하는 고민이다.

3. 그동안 인연이 있었던 다수의 공간 대표님에게, “저 공간 한번 해볼려구요”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오는 것은 “하지마”라는 것이었다. 다들 다양하면서도 비슷한 지점으로 조언을 해주시곤 하였는데 그 중 인상적인 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다. “한번 전시한 사람이 두 번 전시하겠는가.” 이 말인 즉 실제로 한 공간에서 개인전을 두 번 하는 경우가 없기도 하지만, 좀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만남과 헤어짐

이곳을 지나칠 사람들과 그것을 배웅하는 나의 반복이란 것이다.

공간 운영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무들은 결국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에 돌맹이를 던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어디 부딪치는 소리라도 들리면 보람이라도 있지만 대체로 그 돌맹이들은, 끝없는 깊은 우물로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는 한다. 그럴 때 누구라도 함께 한다는 것은, 자칫 이 길고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에 최소한의 보람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고는 하다. 또한 상기한데로 피그헤드랩은 단순 전시 기회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닌, 서로를 알아가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공간이고자 하였다. 그래서 매년 운영하는 공모 프로그램도 그렇지 만 나름대로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당연할 수도 있는 것이, 그러다 보면 사람으로 인한 피로함과 속상함이 있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대체로 평범하지 않은 삶을 지향한다. 타고나거나 자라온 성품이 독특할 수도 있지만, 경험해보니 창작이라는 환경에서 오는 고독함과 괴로움이 또 사람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나 역시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 나도 기획자이자 공간 대표로 누군가를 맞이할 때는 이외로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자 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랑 맞겠는가” 라는 뻔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부딪치거나 속상한 경험들이 생기고는 한다.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 잘나가는 예술가들이 진상 짓을 부리는 게 익숙하게 연출되고는 하는데, 시각예술 씬은 또 이 나름대로 각자가 독특한 에고를 바탕으로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고는 한다. 근래에도, 같이 연을 맺은 예술가 중 한 명이 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한 두 번은 좋게 넘기려고 하였는데 매번 반복이 되니 결국에는 나도 그에 대해 관심을 거두게 되더라. 그가 밖에서 피그헤드랩과 나를 어떻게 말하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그를 위해 준비한 기회비용과 기대감들이, 그저 ‘내 자신의 인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험’ 정도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것에 속상하다면 속상한 일이다. 사실 이러한 일은 간간이 반복되는 일이다.

순간 욕 해서 쓰기는 하였지만 꼭 부정적인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니다. 경우에 따라 너무나도 기대감이 크고 같이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결국 연이 끊기거나, 자신의 길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 또 열정이 넘쳐도 능력과 열정이 시대에 맞지 않아 속상해 하는 이도 있고. 그런 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나조차도 조금 속상해지는 그런 것이 있다. 특히 올해에는 대학 후배들에게 어떤 기회를 쥐보고자 하였는데, 결국 한번의 쇼로 끝나고 말았다. 그들의 빛나는 자질을 좀더 갈고 닦아보고 싶었지만 내가 그들을 계속 붙잡을 수도 없었고, 그들 나름대로도 각자 고민이 있었을 터 인지라 나는 그저 허망하게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물론 그들에게 내가 좋은 기획자가 아닌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이든 그들 나름의 고충들을 옆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두에 밝힌 것처럼, 결국 이들을 객으로 맞이하고 다시 객으로 보내는 마음이 그렇다. 모든 과정, 그리고 그의 전시가 끝나고 나면 결국 다시 그는 그의 길로, 나는 피그헤드랩의 뒷정리를 하기 위해 남는 것이다. 종종 샤프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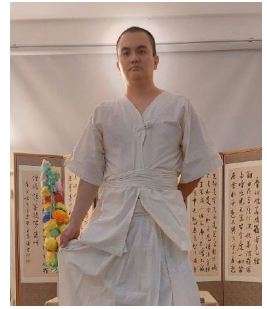
연극이 끝난 후>라는 노래가 떠오를 때가 있다. 쓰고 나니 이게 꼭 피그헤드랩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지 않나 싶다. 다만 전시 공간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나누고 공유하는 곳이며, 그러한 만남과 이별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일 뿐이고.

4. 피그헤드랩은 지난 3년간 17개의 전시와 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모든 전시가 다 좋았을지 또 모든 프로그램이 다 만족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좋은 이들을 만나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 이시각>의 경우, 감사하다는 단어 그 자체로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꾸준함을 유지한다면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게 내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미지의 약속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속상함이 크다. 그래서 “피그헤드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 스스로 질문할 때, 먼저 “아 정말 운이 좋았다.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아무튼, 피그헤드랩은 이제 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주변 이들과 피그헤드랩의 운영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이제 나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다시 스스로의 과제를 설정할 때라는 것도 생각해보게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팀 프로젝트가 동기가 되어 설립하였음에도, 정작 3년간 열성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는 못했던 기분이다. 얼마전 누군가가, 내년부터는 내가 하고픈 것을 향해 다시 달려갔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서 괜히 마음이 울렁이기도 하였다.

나는 내가 인지하고 있던 예술계라는 것이 어찌면 애초부터 너무 조그만 세계였다는 생각을 하고는 한다. 여기에는 회사 생활이 가르침을 주었는데, 아무리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심도 있고 깊은 이야기도, 막상 보는 이와 공감해주는 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그런 생각들이 한동안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좀 더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을 해보게 된다. 작가 생활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는 무엇인가 달성하고자 싶은 목표가 강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과정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더라.

24년을 무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가정 아래, 물론 여전히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전시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한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일단 3주년 전시(12월 2일. 잊지 않기를)를 진행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많이들 놀러 오시길 바란다. 🐾



이 안

원형아티스트 /

누가 뭐래도 세계에서 젤
잘나가는 만신

내 친구 숙이가 아이를 가질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 친구 숙이가 아이를 가질 차례입니다. 삼신할매(지양할매)가 정히 움직여 우리 숙이에게 만큼은 더없이 좋은 아이를 점지해 줄 차례일 것입니다. 이건 만신과 단골네 그러니까 손님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내 친구 숙이를 위해 머리를 조아리며 삼신할머니께 올리는 편지입니다.

“선생님 편하게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아, 사장님 우리 언제 밥 한 끼 하시죠.”

“도사님 따로 개인 연락처 주시면 안 될까요?”

“동네도 가까운데 우리 동네 친구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맺기를 원하고 저도 그런 말들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작이 언제였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몇 십 년의 세월 동안 무당으로서 지내 온 나는 이 말들이 또 한편으로는 덜 익은 썸바귀를 먹고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자리하기도 합니다.

친구라는 것이, 서로 격조 없이 지낼 수 있는, 어떤 관계에서도 동등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동등이란 것이 큰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같은 관심사와 서로를 사람 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아쉽게도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해왔고 유난히 낮을 많이 가리고,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할 일들을 겪은 나에겐 친구라는 존재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했을 때 저는 존재했습니다. 어느 직군이든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당은 마치 자기 삶을 다 꿰뚫어 보고 모든 것을 다 알 것이라 믿고 또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주리라 당연히 그들 스스로 단정 짓고 자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그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전제로 친구가 된다는 것은 저에게는 단지 만신으로서 ‘일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같은 동네여서 또래와 친하게도 지내 봤지만 그 집안일의 대소사를 처리해야 했고, 우연히 놀러 간 집에서는 그 집안의 영가를 달래줘야 했고, 밥 한 끼를 하면서 사업적 거래에 조언을 해야 했습니다. 개인 연락처를 주면 백퍼센트 결국엔 점사를 밤낮없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숙이를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숙이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을 무사히 저와 함께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또 더 몇 년을 제게 찾아 왔다 합니다. 여전히 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숙이란 존재를 알게 된 건 항상 올 때마다 똑같은 떡집의 떡을 아주 소담스럽게 절대 과하지 않고 넘치지도 않게 늘 무명천으로 된 보자기에 싸서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떡을 싼 보자기가 정말로 유용했습니다.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 항상 목에 스카프를 하든가 손수건을 두르든가 해서 목소리를 다치지 않게 보호합니다. 손수건은 너무 짧고 스카프는 너무 길어 심지어 자다가 목이 졸려서 잠을 깨기도 합니다. 하지만 숙이의 떡 보자기는 내 목둘레의 사이즈와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제야 숙이가 보였습니다. 삼 년도 넘게 저에게 찾아 왔지만, 점 볼 때의 손님 이상으로는 기억하지 못했던 내가, 개인적으로 맺어질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다 차단해 버리는 내가 처음으로 눈이 열렸습니다.

어느 날 저 먼 데서 숙이가 또 찾아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같습니다. 장녀로서 가족을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님을 다 물어보면 그다음엔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물어보면서 항상 자신의 이야기는 점사가 끝나갈 무렵 겨우 말 꺼내기가 일쑤입니다. 언젠가 이런 숙이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바로 서야 내 주변이 바로 서죠,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뭐라 해도 사업을 하게 될 테고 좋은 배필을 만날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먼저 물어보면 어때요?” 숙이의 눈가가 축축해집니다. 제 말에 대한 숙이의 화답입니다.

숙이는 어색한 상황에 말을 바꿉니다, 실제로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에 맨 떡을 싼 광목천 보자기를 풀어서 보여주며 숙이에게 “샘이 준 선물이에요!” 라고 했지만 그녀는 어리둥절해합니다. 저는 동여맨 광목천 보자기를 목에서 풀고서 누구를 위해서 올렸든 이렇게 정성을 올리는 그 마음을 광목천으로 인해서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그 전에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점만 보고 간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날 본 분들을 다시 축송과 축원을 해주고 몇 년이든 마음이 가는대로 기도문을 올려놓습니다. 무작정 돈을 쓰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제물을 사오는 걸 제가 그리 좋아하지 않기도 합니다. 정말 필요하면 점사가 끝나면 그때 제물이나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기도에 관련된 것들을 올리라고 하는 게 제 방식이라 이렇게 먼저 제물을 올렸기에 숙이를 알아채는데 시간이 더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숙이는 5년째도, 7년째도, 10년째도 내가 안부를 묻기 전에 점사를 보러 옵니다. 여동생의 공무원 시험 기도를 맡기고, 만신은 젤 소중한 기물에 부적을 써서 그 동생에게 보내고 2년을 넘게 기도를 해서 또 한고비를 넘기고 귀한 남자 막내 동생의 입시에 온 힘을 다해 기도를 함께했습니다. 재수를 하지 않고 대학을 한 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숙이에겐 좋은 남자친구가 생기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점사를 보는 그 시간 이외에 나도 숙이도 항상 말이 없었습니다. 대화를 나누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여러 이유로 제가 캄보디아에서 살게 된 어느 날 해 질 무렵, 숙이의 결혼식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그때, 숙이 생각을 하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스케줄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러를 더 위로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저는 스케줄을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둔한 숙이는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남에게 흠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나는 마찬가지로 내비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숙이는 항상 힘든 시기에 그리고 꾸준히 일이 있든 없든 그렇게 떡을 찐 보자기를 들고서 항상 내가 모시는 신령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신령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티 내지 않고, 남들 몰래 어떤 때는 손을 모았고 어떤 때는 절을 했습니다. 숙이는 내가 모시는 신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발 행복하기를 자기 가족만큼은 행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만신이기에 전에 한 존재로 받아들여 줬다는 것을 그전에 알았다손 치더라도 이제야 눈으로 확인한 내가 너무 바보 같아 펄펄 많이 울었습니다. 숙이의 결혼식에 차마 갈 용기도 못 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였지만 무당이 결혼식에 왔다는 입방아에 오를까봐, 그래서 숙이의 결혼식을 망칠까봐 그게 제일 걱정되었습니다. 꿀랑, 진심, 몇 푼 되지도 않는 축의금을 보내고선 명부에 이름 쓰지 말고, 네가 따로 쓰라는 약속을 받아내며, “선생님 저 정말 시집가네요!”라고 울먹이던 말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와 함께 울던 우리 숙이.

이제는 숙이가 임신할 시기가 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건강하고 좋은 아이가 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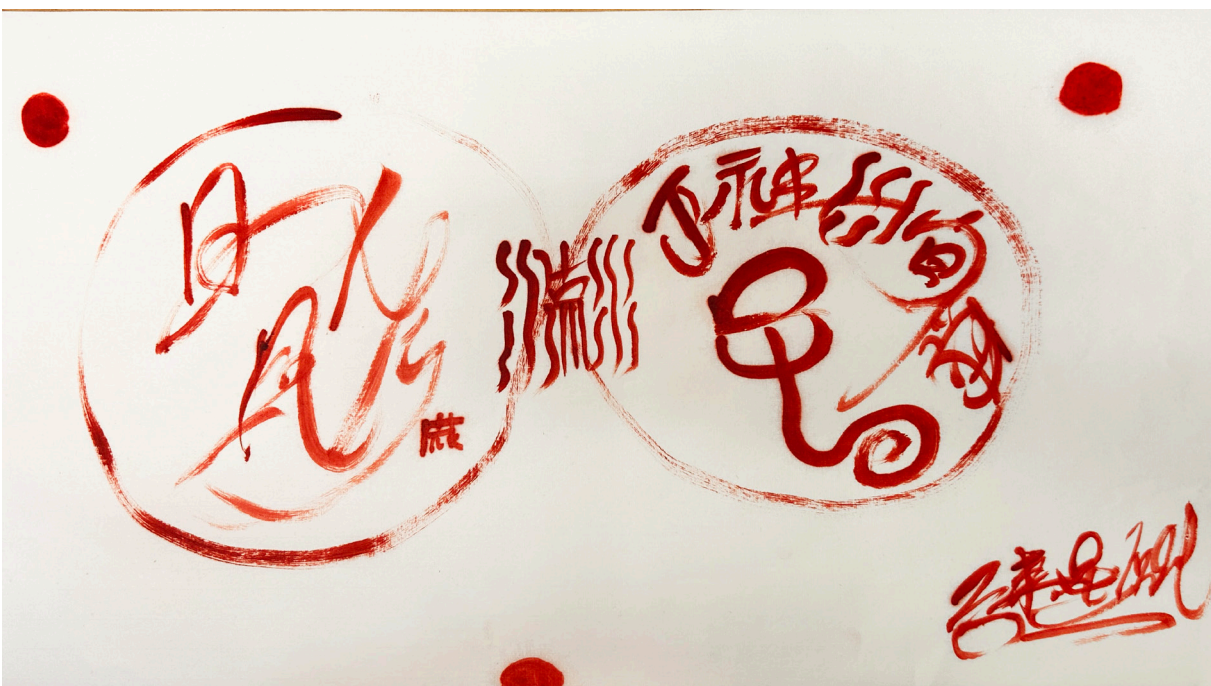
에게 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가 남자아이였던 이에게 부탁해서 아이의 배냇저고리를 구했습니다. 아들 딱 하나만 낳아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게 키워낼 숙이를 응원하는 또 다른 선생님이 선뜻 당신의 속옷을 내줍니다. 이런 거 혹시 필요하지 않냐고 조용히 묻습니다. 그분도 아셨나 봅니다. 한 인간으로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그녀의 가임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인 것을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좋은 아이를 임신할 것임을 확신함에도 제가 인간 대 인간으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속옷을 구하고 첫 남자아이의 옷을 구하는 행동에 웃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산에 열쇠를 묶어 놓고 우리 서로 사랑 변치 말자, 하는 맹세와 다를 바 없는 미신이라 치부해도 좋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진심을 담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숙이가 십 오년 넘는 세월 동안 보여준 그 자세, 그 마음 한결 같이 나를 ‘만신’이자 동시에 ‘인간’임을 나도 분리하지 못한 나를 분리해서 봐줬던 그녀에게 따스하고 속 깊은 마음에 단 십분의 일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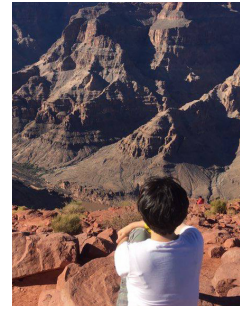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 정히 마음을 먹고 붓을 듭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정한 수를 뜨고 부적을 써내려 가며 빌고 또 빕니다. 그리고 삼신할머니께 구구절절 올리는 이편지의 마지막을 써내려 갑니다.

이 땅의 모든 삼신할매와 내 육천전안 삼천진중 삼천전안 육천진중의 삼신할매 모두들 앞장서서서 우리 숙이의 조상님과 사부님의 조상님의 삼신할매와 합의 받아 우리 숙이에게 좋은 아기 점지해 주세요. 라고요. 🐾

잉태부



생존일기



제 이 드
이루려는 자

나는 캐나다에서 또 다른 생존기를 열렬히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니, 이제는 캐나다의 40대 엄마다.

나는 한국에서 도망쳤다.

화목한 가정, 엘레강스한 엄마, 뭐든지 다 받아주실 것만 같은 너그러운 아빠, 좋은 직장 and 안정된 월급, 착하고 양전한 남편, 난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버렸다.

너무 살고 싶었다. 앞만 보고 달려온 나에게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 줄 그런 곳이 필요했다. 첫 시작으로 나는 집에서부터 도망쳤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 엄마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도망쳤다.

이 글을 읽을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가 느끼고 겪었던 엄마, 그 엄마로부터, 나를 딸이 아닌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는 노예쯤으로 생각하는 우리 엄마로부터 도망쳤다.

무책임할 만큼 가족에게 관심 없지만 스스로를 너무나 좋은 가장으로 생각하는 정신 나간 남편으로부터, 사사건건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그 아들을 조종하는 시어머니로부터 그리고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한때 내 전부로 여겼던 직장의 진절머리 나는 ‘인간’들로부터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캐나다를 날 살려줬다. 오해 하지 말길. 아메리카 드림 같은 캐나다 드림을 마음에 두고서 하는 말은 더욱 아니다. 꾸역꾸역 참다 터져버린 나를 숨겨야 한다.

캐나다를 아이들을 영어 공부를 시키기 위해 그 좋은 직장도 때려치우고, 이민 가는 좋은 엄마 코스프레를 하기에 딱 좋은 나라였다. 도망치는 와중에도 나는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멋진 여자로서 남고 싶었다. 내가 지금 도망치는 중이라는 것이 들리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캐나다를 선택했고, 캐나다로 조용히 도망쳤다. 다시는 그 누구도 나를 궁금해하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이다.

캐나다행 비행기를 타러 가는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짐이랄 것도 없는 짐을 싸 들고, 남루한 민낯과 무릎이 튀어나온 트레이닝복 바람으로 아이들의 손을 꼭 붙잡고 비행기의 L2 Door로 들어 갈 때에는 짜릿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 20년 동안 매일같이 어색한 화장과 유니폼을 입고 매번 목숨을 건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그 마음으로 수천수만 번 드나들었던, 매일 죽을 만큼 들어가기 싫었던 온갖 냄새들이 난무하는 비행기의 L2 Door가 처음으로 예뻐 보였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누구의 배웅하나 없이 머나먼 나라로 도망치듯 떠나는 나였지만, 당장 집도 차도 월급도 가족도 충분한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나였지만, 그 어떤 때보다 홀가분했다.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5년.

결국, 나는 멋지게 나의 두 아이만을 데리고 캐나다로 도망치는 것에 성공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이었다. 점점 나는 ‘40’이라는 나이에 가까워져 갈수록 불안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속에서 나 혼자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답답했다.

거의 20년을 다니고 있는 직장은 여전히 내 적성이 아닌 것 같고, 나는 도무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인지, 어떤 것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어떤 작은 실마리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삶이 전혀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끝없이 넓고 칠흑 같은 늪 한가운데에 있는 느낌이었다.

그때 나는 직장에 다닌다는 핑계로 친정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기고 10년째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첫째를 낳고 회사에 복직해야 할 무렵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출퇴근 시간이 불안정하고, 며칠씩 집을 비워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아이를 봐주는 사람은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했다. 대부분의 승무원 엄마들은 베이비시터를 찾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런 이유로 회사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도 허다하다. 그렇지만 나는 행복하게도 엄마가 아이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다.

결혼해서 첫째를 낳고 일 년 반 정도 지날 때까지 잠깐 이삼 년의 시간 동안 신혼살림을 해 본 것을 제외하면 나는 평생을 부모님과 습관처럼 인생을 또 함께했다. 결혼해서 독립했지만 결국 스스로 독립을 포기해야만 했었다.

그래도 엄마가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봐 주신다고 해주신 덕분에 나는 돈을 벌러

나갈 수 있었다. 엄마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감사한 만큼 나는 밖에 나가 열심히 돈을 벌어 왔다. 아이들 돌보기를 엄마에게 맡긴 채 회사 일에 전념했다.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영어 학원도 틈틈이 다녔고, 대학원도 진학했다. 정말 쉬지 않고 회사에서 돈을 잘 벌기 위해 열중했다. 점점 회사에서도 내 노력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였다. 기뻐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체력은 늘 방전돼 있었고, 말할 기운조차 없었다. 말 그대로 ‘기’가 다 빠져 내 몸은 영혼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놀이터에 나가 자는 꼬꼬마 아들을 옆에 붙잡아 두고 아이의 손에 핸드폰을 던져준 채 나는 늘 누워있어야 했다. 집에 있을 때에는 피로 누적으로 항상 정신이 몽롱했다. 아이를 대할 때는 항상 무기력했고, 무관심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항상 좋은 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는 엄마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엄마가 헌신적으로 내 아이를 봐주시는 것만큼. 내 아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 줄 몰랐었기에 아이를 돌보아주는 엄마를 내가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 그것이 내가 배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다.

솔질하게 고백하고 해야 할 것 같다. 나는 평생을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난 딸이었다. 당연히 내 아이들이 원하는 것 보다 엄마의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한마디에 나는 나도 모르게 크게 움직였다. 모든 축각이 엄마를 향해 곤두서 있었다. 혹시나 엄마에 대해서 내가 뭐 하나도 놓친 것은 없나 항상 노심초사했다.

엄마가 지나가는 소리로 하신 것을 기억하고, 다 준비해 드리려고 노력했고, 엄마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 시절 내 기억 속에 엄마는 늘 몸이 아픈 사람이었기에 나는 습관처럼 엄마를 돌보는 것이 몸에 배어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 아이들은 어렸을 적 외할머니에게 혼나지 않고 할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적이며 말 잘 듣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여야 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자기들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다. 나도 모르게, 너무나 당연히 아이들마저도 나의 엄마에게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을 강요당했던 것 같다.

나는 맘대로도 내 아이를 사랑할 수 없었다. 내 아이가 소중하다고 엄마 앞에서 테를 낼 수 없었다. 내 인생에서 내 아이가 소중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순간 엄마는 빠지고 만다. 서운함을 꼭 들어내시고는 아이를 봐주는 당신의 수고스러움을 어떻게든 인정해 드려야 했다.

나는 결국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딸인데, 착한 k-장녀 코스프레에 빠져서 내 인

생과 내 젊음을 엄마에게 아빠에게 동생에게 남편에게 쏟아부었다. 심지어 나는 결혼도 했고 두 아이의 엄마였지만 아직 어린 두 아이는 내 인생에 뒷전이였다. 나는 엄마가 딸인 나 자신보다 손주인 내 아이들보다 우선인 삶을 살았었다.

어느 순간 문득 고개를 들어 세상을 보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너무 지긋지긋했다.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더 이상 내 삶을 사랑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긋지긋한 내 삶이 너무 싫어졌다. 그냥 끊임없이 물이 줄.줄.줄 새는 항아리에 바보같이 물을 가져다 붓는 내가 싫어졌다.

내 삶을 되찾고 싶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좋은 사람으로 남을 만한 구실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한다는 좋은 구실을 발견했고 그 뒤로 신나게 꿈을 꾸기 시작했다.

캐나다에만 가면 나는 엄마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엄마의 나에게서는 협박과 무기력으로 한생을 지치게 만든 소리를 안들도 된다는 생각에 날아갈 것 같다. 엄마가 열심히 다닌 정신과에서도 이유가 없다는 그 말들, 가령 '나 너무 힘들다... 나 좀 어떻게 해줘 나 정말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사람을 가둬 두는 엄마의 지붕아래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만 해도 날아갈 것 같았다.

이 끝나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 위에서의 내 행적을 한방에 지워줄 수 있는, 게다가 나는 아이들을 빌미로 좋은 엄마까지 되는 인생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된 것이다.

나는 도망친 엄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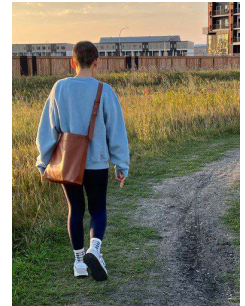
이제 나는 진정한 엄마가 되기 위해 내 엄마 이야기를... 또,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꼭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응원 받고 싶다. 그리고 응원 받을 자격 있는 엄마이자 한 여자로 거듭나고 싶다.



암입니다



줄 리
음식예술가

암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전조증상도 없었고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매일 요가를 하고 소위 건강 식단이라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대 중반에 또 다른 삶을 살고자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국가 검진을 간단하게 받고 가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종합 검사를 했습니다.

유방초음파를 하니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하네요.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의사선생님 호출이 있습니다.

암입니다.

저에게 이 말을 던져주셨습니다.

완벽히 건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정말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현실감각은 1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내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에서는 왜? 라는 물음표만 가득했습니다.

왜? 나지 왜? 내가 왜? 하필 지금 왜?

끊임없이 반문해보지만 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었고 검진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 암 환자란 현실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결국 저는 이민을 위해 비행기를 타야 하는 날,

마치 '비즈니스석'에서만 가능한 다리를 펼 수 있는 '침대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나를 상상만으로 만족해야했고

그 대신 종합병원 수술대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석 다르다는 비즈니스석 음식을 처음 먹을 설렘은

나는 두려움에 숫자를 세다 마취에 취해 잠들어 수술을 했습니다.

유방 절제 수술을 받고, 4회 항암을 하고, 19번의 방사선을 하는 동안 늦은 겨울은 사라졌고 봄이 가고 여름도 그렇게 가버리고 초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6개월 늦어진 9월 저는 드디어 불확실한 비자를 들고서 이민을 다시 시작해야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른 나라, 불안정한 비자와 암에 좋은 식단을 먹어야 한다는 것 말고는요.

유방암 특성상 재발과 전이가 다른 암에 비해 쉽다고 하니 전에는 다이어트식 위주로 관심을 가졌던 식단이 이제는 유방암에 좋은 음식, 식재료 쪽으로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추슬러지면서 다시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요리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살았던 난 이 나라의 재료를 보며 마음이 설레고 새로워지기도 하고 또 다잡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곳에서 암 환자와 건강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널리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브로컬리, 양배추, 컬리 플라워 등의 십자과 채소들과 면역력에 좋은 고구마, 단백질 덩어리 닭가슴살, 콩 등이 유방암 환자에 좋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서리태라고 불리는 검은 콩 대신에 다양한 종류의 콩이 들어 있는 콩자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강낭콩, 병아리 콩, 검은콩, 백태, 흰 콩 등 일곱 여덟 가지 섞여 있는 콩자반입니다.

먼저 깨끗이 씻은 후 1시간 정도 불려 줍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재료의 상태에 따라 시간은 가감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잘 불어난 콩들을 물이 찰방찰방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중 약 불로 10여분 끓여 줍니다. 이때 주의 사항, 반드시 꼭 뚜껑을 열고 끓여 주세요, 뚜껑을 닫고 끓이면 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중간 중간 거품을 걷어 주시면 완성도 높은 콩자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만의 건강한 비법 하나 알려 드릴까요 저는 배즙이나 호박즙으로 물의 양과 설탕의 단맛을 대신하곤 했습니다.

콩이 익어갈 때쯤 설탕을 넣어 단맛을 더하고, 간장으로 짭맛을 잡아주고 간장과 설탕이 충분히 콩에 스며 들 때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 깨소금 뿌려 내면 한 끼 반찬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콩자반 완성입니다.

다시마 육수에 담백하게 끓여 낸 계란탕, 아삭아삭한 로메인 겔절이, 단 찐 단 찐 콩자반, 두 번 구워 더 맛있는 구운 김, 그리고 콩이 반은 들어있는 콩잡곡밥으로 나를 위한 한 끼 차려봅니다. 짭맛과 단맛을 조금 줄이면 밥반찬이 아닌 샐러드 개념으로 드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각각의 콩들이 가지고 있는 식감과 다채로운 맛 때문이겠지요.

유방암 수술과 항암, 그리고 방사선 치료와 매일 먹는 호르몬 억제를 위한 약 한 알로 나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없는 어깨 통증과 팔을 들어 올릴 때 찾아오는 불편함, 방사선 치료로 인한 화상 자국, 갱년기 증상으로 찾아오는 손발 저림과 우울증, 그리고 순간순간 느끼는 재발과 전이의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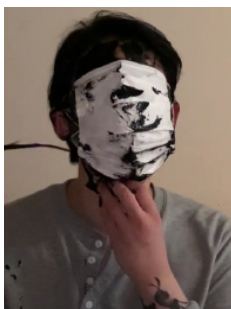
내게 암이라는 녀석이 찾아오기 전에는 건강이 최고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나니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저는 오늘도 나를 위한 밥상을 차리며 암과의 안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콩자반



알지 못하는 것에 가정을 덧대어 추리하기

김 희 진
노동자





다시, 당신은 누구인가? /누가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첫째의 추론 도구로 당신의 미묘한 작업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인류가 주어진 자원을 이용해 일구어낸 문화나 문명을 연구하고 누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령 마른 잎을 이해하고 정보를 추출한 후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장, 지금을 점유한 문제나 미래의 설계에 대해서는 유용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능동적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함없이 가치가 있다.

둘째의 특징은 존엄성과 인권을 긴밀하게 연관하는 당신의 습성이다. 이는 어깨를 근본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모든 가치를 넘어선다는 가치 중심적 관점을 포함하기도 한다. 당신은 그 자체의 정의 안에서 많은 변화를 겪으며, 근사적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다만, 그 방식이 매우 이기적이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양 주변과 당사자를 분리해 왔다는 것이다.

한 편, 무게는 질량, 부피를 말하는 양감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형태는 어떤 경우의 계산을 하든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주제다. 공간을 지각하고 있는 신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만큼의 할당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으로부터 그 ‘기’를 차근차근 더듬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얇은 책을 손가락 위에 넓적하게 올려놓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다. 하지만 항상 그 중심이 가장자리와 가장자리의 중앙에 있지는 않다. 그래서 유심히 감각해야 하는 것이다. 통념의 형태와는 약간 다르다. 이를 관통하는 공식 또한 없다. 역사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무리다. 관습을 깨고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연장한 신경의 뿌리는 이성에 대한 근대의 신뢰와 계몽 지향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생존의 역사가 함께한다. 모든 것을 그들과 함께한 기술로 환원하여 계산하고, 치환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꺼안고 있기도 하다.

결국 너는 나를 달리 이야기하는 것에 다름이 없다. 또 너와 나의 경계를 긋고, 인간이 아닌 것에 어떤 윤리 및 규범을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역사 이전에서부터 존재했다. 너와 나는 함께하는 방법으로 생존했기 때문에. 연극은 이러한 이해에 도전하여, 근대적 이분법과 인간주의를 깨부수고, 세분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성기의 절제, 뼈로 만든 창, 귀머거리, 세 발의 민족 담론과 같은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무의미한 절룩거림이 야만적 행위를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폭로하는 데 큰 힘을 실어준다. 이를 해체하고,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며, 지배나 통제에 관련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당신이 가진 한 편의 의무다.

핵심은 소통이다. 이미 있는 층위는 부수고, 배제된 나(너), 그것은 다양한 혼종을 꺼안는다. 다시 생각해봐도 나는 굉장한 구경꾼이었다. 다리를 힘껏 벌리고, 힘껏 걸음을 내디딘다. 온 동네를 활보하며, 미치광이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모두 기능 없는 옷을 입고, 기능을 위한 움직임을 한다.

최근 꽃잎을 지나치는 모든 애벌레에게 일제히 실시하는 추상 구성(소위 말하는 예리한 난도질)이 힘껏 부딪히는 반란을 처리하는 의식에 연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를 요리하는 인간은 물론 일선 깨어나기 전의 유충들을 모두 저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책상에 앉거나, 몸을 휘젓는 것이 어쩐지 어색해 몸을 몇 번 들썩이다가 돌아왔다. 올해 들어서 형태가 없는 압력에 눌려 작은 자극에도 몸서리치며 살아왔다.

‘주체로서 가치를 만들자.’

구호를 강박적으로 외치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랬다.

가장 가난한 곳에서 나는 서 있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내 존재의 당위성 그 자체를 물음이었고, 지금으로서 내가 도저히 이루지 못할 증명을 살짝 유보하여 믿음으로 감쌌다. 내 존재 의미는 앞으로 보여야 할 (반)증명숙제요, 이 종교적인 신뢰를 전제로 나는 나를 가동한다. 일이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고민의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결국 일한다. 청소도 설거지도 빨래도 하고, 무얼 만들고 쓰고, 그리고, 가르치며 배운다. 그 이유는 그것이 가치라고 혹은 그를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다. 목적은 유용한 형태의 사랑이다. 화폐 같은 적당한 의무를 내가 갖고 있다. 그를 위해 바라야 할 기본적인 일이나 능력 또한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존엄이나 권리다. 주체가 될 자격과 힘이다. 기계장치의 부속조차 절대로 안정하지 않은 것이다. 운동하고 일하는 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러므로 모두가 멈추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인체는 대칭을 가진 변증법적 기계이다. 노동이 존재하기 이전에 초월자에게 얻은 피조물의 힘이다. 가끔 나는 왼쪽 무릎을 절고, 오른쪽 귀를 막는다.

혼자서 살림을 맡아 한다. 주체가 된 노동자로서 첫걸음을 뒀는다. 작은 날갯짓과 영성했던 하루들, 다 그립긴 하지만 기다리기 힘들다. 어차피 이것밖에 없어서 시작했고 이제 돌아갈 수 없다. 한갓 실패 과정이었지만 이제 그냥 살고, 버틴다. 창작이나 작업 같은 체계적 언어가 아니라 생존이나 복수와 같은 말랑한 단어가 더 어울린다. 열심히 살고, 살 기회를 만들고, 살 자리를 찾아 살아내야지. 다시 나를 죽여 널 사람을 찾고, 다시 살고. 그렇게 죽고. 🐱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내 그림의 집

주방. 퀘렌시아

퀘렌시아(Querencia)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다. 투우사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 투우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퀘렌시아Querencia라고 부른다. 회복의 장소이기도 하다. (류시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중 일부)

나의 퀘렌시아는 작업실이다. 작업실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집이다. 주방 한쪽, 책상, 거실 바닥 등이 작업실이다. 나에게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자, 삶의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장 같은 공간이기도 하다. 그 중 주방은 내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전용 일터이다. 이 일터에서의 일상이 작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다.

집-작업실이 실재의 ‘퀘렌시아’로 안식을 찾는 자리라면, 작업들은 내면의 ‘퀘렌시아’의 표현이다. 브레인 스토밍 같이 떠도는 일상의 생각을 잡는다. 그리고 그린다. 완전 I형(mbti) 인간이 내가 수다를 떨 수 있는 곳이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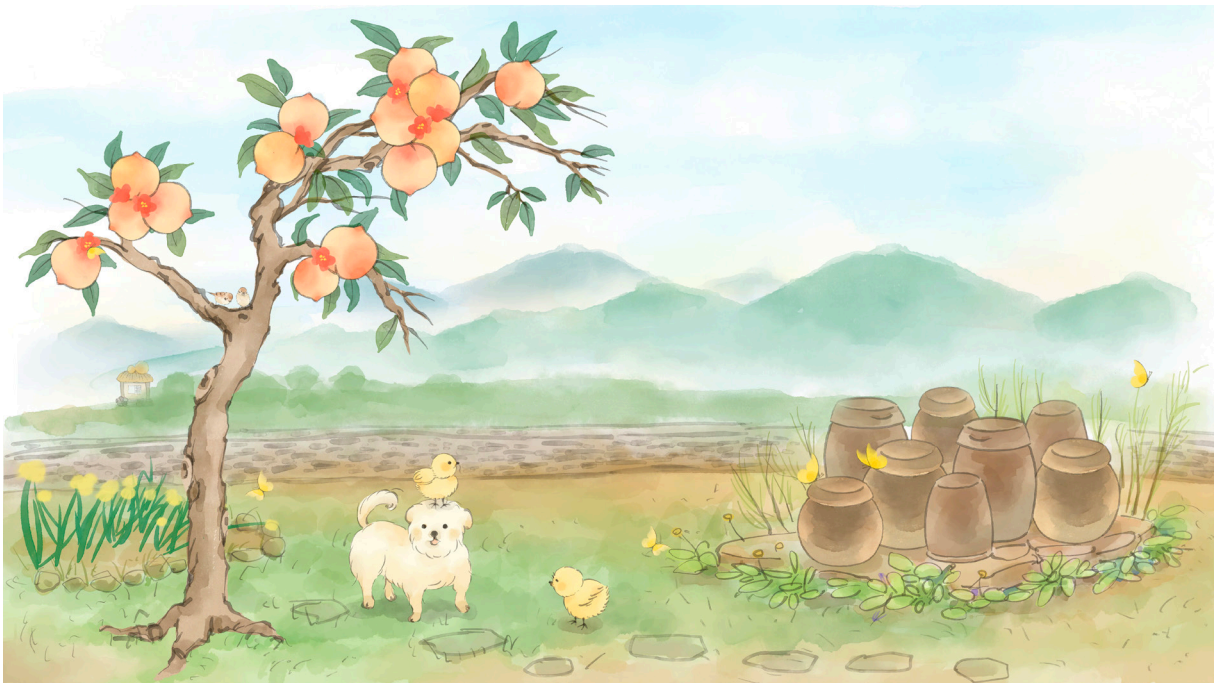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들은 ‘자기만의 방’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방과 년30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떠오른다. 하지만 요즘은 남녀 가릴 것 없이 자기만의 영역을 잃어버리고 산다. 피곤하고 바쁜 일상에 치여 여유가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을 더욱 더 가지고 싶어한다. 각종 인테리어 잡지에는 베란다나 주방 한켠에 카페나 작업실을 꾸린 기사들이 나온다. TV에서 맨 케이브(man cave)라는 것을 봤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남자들이 지하실 같은 공간이나 방에 자기만의 취미와 여가활동을 위한 방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남성들의 로망이라고 한다.

나 또한 식탁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그림을 끄적이는 시간이 행복하다. 그 주방에서의 끄적임이 작업의 시작이고 현재이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식탁에서 소설을 썼다고 한다. 대학졸업 무렵, 나는 하루키의 작업스타일에 대한 글을

읽고 동경했었다. 작업공간의 제약 없이 일상 속에서 작업을 하고 싶었다. 그 당시 작업실 구할 형편이 아니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후 근근히 작업을 하기는 했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고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작업실 없이 근 20년이 지났다. 지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야~ 집과 작업실 다 가지고 싶다!!!







내 그림의 집 스틸 컷_2D 애니메이션, 2023

이 작품의 모티브는 내 그림 엄마에게(65x100cm, 한지에 분채, 2015. 지금 이시각 6월호 참고) 이다. 한지에 분채로 채색한 그림을 다시 디지털로 작업했다. 그림에서 영상으로 오면서, 그림에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과 화폭의 끝에서 뻗어 나와 연장되어 확장된 그림 속 세계를 보여준다.

그림<엄마에게>는 주방에 엄마가 앉아 있는 그림으로 엄마에 대한 서사를 담고 있다. 영상에서는, 엄마가 된 나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영상 속에는 나는 없고, 주방이라는 공간과 거기 있는 물건 있고 주방과 연결된 공간이 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한 존재인 ‘파’가 나온다. (파 이야기는 12월호에...)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생기고 살림을 하는 일상이 작업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케미를 이루고, 어떻게 살아 가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나의 공간은 주방이고, 가족은 장난감과 강아지와 병아리, 참새 등 귀엽고 보살펴야 될 느낌을 주는 물건과 동물들로 상징된다. 지금의 내 삶은 그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다. 이런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존재는 주방에 늘 있는, 흔하게 먹는 식재료이자, 개인적으로 코리안 아줌마의 상징으로 선택한 ‘파’로 대신하게 되었다. 배경 음악 역시, 음계 중 ‘파’가 은은하게 리듬을 타며 연주되어 ‘파’를 강조하고 있다.

‘파’가 되어서도, 나의 자리를 찾고 흔적(작업)을 남기는 등의 ‘나’를 찾고 싶은 의지는 가족과 나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점점 커져간다. 일상과 고민이 돌고 돈다. 내 작업은 여기서 시작된다. 내 그림의 집에서.

전시 보러 오세요^^

위의 작품이 전시되는 전시입니다. 지나친 관심과 응원 환영합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이미지의 배반>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문구를 오마주 했다.

이것은 파가 아니다(Ceci n'est pas une pa)

-전시장소: 갤러리175(서울 종로구 자하문로53 2층)

-전시작가: 이채연(홈페이지: <https://leechaeyeon.creatorlink.net> SNS: <https://www.instagram.com/loralei9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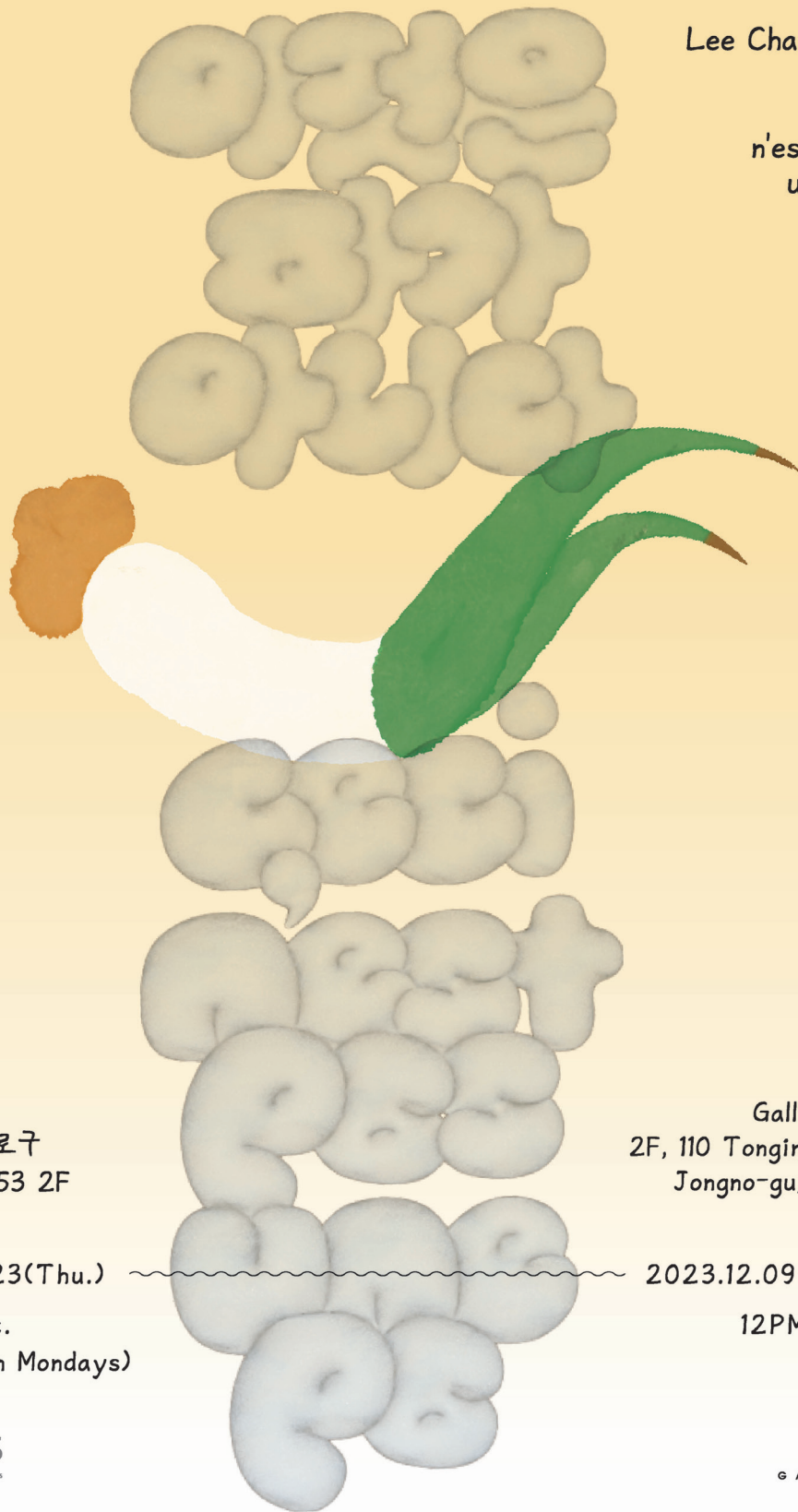
-전시기간: 2023. 11. 22[수] ~ 2023. 12. 9[토], 12:00 ~ 18:00, 월요일 휴무

이채연

이것은
파가
아니다

Lee ChaeYeon

Ceci
n'est pas
une pa



갤러리17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53 2F

Gallery175
2F, 110 Tongin-dong,
Jongno-gu, Seoul

2023.11.23(Thu.) ~~~~~
Thu.-Sat.
(Closed on Mondays)

2023.12.09(Sat.)
12PM-6PM

K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175
GALLERY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독자 의견을 듣습니다!

문화예술인, 자신만의 세계를 소개하고 싶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작업물, 소개하고 싶은 것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아카이브 하도록하겠습니다.

pigheadlab@gmail.com / A4, 3페이지 정도 혹은 그 이상 / 프로필 사진과 필명, 자기소개

<지금 이시각>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내 콘텐츠 사용, 문의 등은 우선하여 피그헤드랩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시각 TIME NOW_2023. 11, 열일곱번째

발행인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www.pigheadlab.com)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참여 필진 : 김희진, 오종원, 이안, 이채연, 제이드, 줄리

문의 : 01082339033